

뺨을 놓았나 **승부조작** 뺨에 걸렸나

문우람



檢 “상무 문우람, 팬으로 접근한 브로커에 먼저 제인”
“NC 이태양, 지난해 4차례 가담하고 2천만원 받아”

브로커가 아닌 프로야구 선수가 먼저 제안한 승부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가 있는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은 국민체육부대(상무) 소속 현역병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또 브로커 조모(36)씨는 구속기소, 불법 스포츠도박 배팅방 운영자 최모(36)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선발로 된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29일자 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1이닝 1실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태양은 7월 31일, 8월 6일, 9월 15일자 3경기에서도 '1이닝 볼넷', '4이닝 양팀 합계 6득점' 등을 브로커로부터 청탁받았다. 실제 8월 6일자 경기에선 성공했지만 7월 31일, 9월 15일자 2경기에선 실패했다. 이 3경기에서 이태양은 돈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패한 경기에서 큰 손해를 본 배팅방 운영자 최씨가 손해액을 만회하려고 성공대

가를 주지 않은 것이다. 승부조작은 선발 투수가 미처 몸이 덜 풀린 것처럼 보이려고 주로 1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우람이 먼저 이태양, 브로커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경기 일주일 전쯤 구체적인 경기일정, 방법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우람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배팅방 운영자 최씨는 이태양이 승부조작에 성공한 5월 29일 한경기에 돈을 걸어 1억원을 남겼다.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브로커 조씨를 통해 이태양에게 전달했다. 이밖에 2000만원은 브로커 조씨에게 주고, 문우람에게는 스위스산 ‘브라이틀링’ 고급시계와 명품의류 등 1000만원치 선물

을 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브로커 조씨는 먼저 문우람에게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중인 야구팬으로 접근해 술과 식사를 사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조씨와 문우람이 만난 술자리에 이태양이 어울리면서 아는 사이가 됐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2011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입단 동기이다. 이태양은 이듬해 신생구단인 NC로 이적해 중심투수로 뛰었다. 그는 지난해 10승(5패)을 달성, NC가 정규시즌 3위를 차지하는 데 큰 힘을 보탤었다. 고교생이던 2010년에는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문우람은 넥센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하며 지난해 12월 국민체육부대에 입대했다. /연합뉴스



KIA 원투펀치 ‘동반 200이닝’ 순항

<p>125.1이닝 양현종 19경기 평균 6.5이닝 소화 초반 불운 딛고 승수 쌓아 평균자책점왕 2연패 도전</p>	<p>127.1이닝 헥터 리그 최다이닝·피홈런 5개뿐 시즌 8승·평균자책점 3.39 “시즌 200이닝 목표” 속도</p>
---	--

KIA의 원투펀치가 ‘동반 200이닝’을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KIA 선발진의 든든한 두 기둥은 좌완 양현종과 우완 헥터다. 헥터는 선발진 중 가장 꾸준한 모습으로 시즌을 보내면서 3.39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1회에만 3명의 주자에게 안방을 허용하는 등 출발이 좋지 못했지만 7이닝 3실점으로 이날 등판을 마쳤다. 불운의 난조 속에 승리를 날리지는 했지만 헥터는 7이닝을 추가하면서 양현종을 따돌리고 127.1이닝으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야구 전체 1위다. 양현종도 초반 불운과 부진을 털고 점점 리그를 대표하는 토종 투수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19일 롯데전에서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막아내기도 하는 등 노련미를 과시하면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5번째 승을 신고했다. 또 이 경기를 통해 양현종은 3.23로 평균자책점을 낮추며 2년 연속 평균자책점왕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헥터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지만 피홈런을 단 5개로 묶으면서 묵묵하게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 가장 낮

은 피홈런율이다. 양현종은 위기 관리 능력에서 실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안정된 밸런스로 구위까지 더해지면서 뒤늦게 승수 쌓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팀의 원투펀치로 나란히 출격하면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닝 경쟁’을 하고 있다. 헥터는 시즌 초 승리투수 인터뷰에서 “200이닝을 소화하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양현종도 “이닝 1위가 목표다. 이왕이면 국내 선수가 하면 좋겠다. (시상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지만) 이닝을 혼장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이닝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나란히 19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헥터가 127.1이닝, 양현종이 125.1이닝을 책임지면서 사이좋게 이닝 1·2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3위는 20경기에 출격한 LG 소사로 124이닝을 기록하고 있다. 두 사람의 평균 이닝 소화력을 보면 ‘동반 200이닝’은 충분히 가능한 기록이다. 선발이라는 책임감으로 이닝을 먼저 언급했던 두 사람이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KIA의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지만 결국 퇴출 삼성 “계약 해지 결정”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해외원정도박과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등의 의혹을 받는 투수 안지만(33)을 결국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21일 “KBO에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BO가 계약 해지를 승인하면 안지만은 승인한 날부터 연봉을 받을 수 없다. 흔히 방출로 부르는 웨이버 공시보다 더 큰 제재다. 삼성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안지만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구단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안지만은 2014년 12월 마카오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장한 정직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국내에서 추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지만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대구지검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안지만은 두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10월 도박 파문에 휩싸였다. 안지만, 임창용, 오승환이 해외원정도박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임창용(현 KIA 타이거즈)은 삼성으로부터 방출당한 뒤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KBO가 해당 시즌의 50% 출장 징계 처분을 내려 임창용은 72경기 출장 징계 징계를 소화한 뒤 1군 무대에 복귀했다. 윤성환은 일단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선다. 경찰은 “윤성환은 중요 참고인이 귀국하지 않고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안지만은 기소 의견이 나왔지만, 윤성환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아직 윤성환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IA, 내일 ‘V10’ 유니폼 입고 뛰다

‘고 투게더 데이’ 행사
‘호랑이 군단’이 V10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23일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에서 ‘고 투게더 데이(Go Together day)’를 열고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 유니폼을 입는다. ‘고(Go) 투게더 데이’는 올 시즌 KIA의 캐치프레이즈인 ‘동행(Go Together)’과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 영광을 재현한다는 선수단의 의지를 담은 ‘제3 유니폼 데이’이다. 이날 선수단은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앞둔 2009년 당시 유니폼(챔피언스 저지)을 입고 경기를 한다. 시구와 시타는 한국시리즈 우승일인 2009년

10월 24일에 태어난 ‘V10 동이’ 초등학생이 맡는다. 이밖에 2009년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진다. 2009년 한국시리즈 하이 라이트 영상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되고, 우승 당시 직접 경기를 관람했던 팬들의 사연도 소개된다. KIA ‘더 뉴 응원단’은 2009년 당시 히트곡 공연을 선보이고,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KIA는 오는 8월 20일 LG전과 9월 3일 롯데전에도 ‘고(Go) 투게더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수단이 입는 챔피언스 저지는 마제스틱 클럽하우스 스토어와 온라인을 라커디움(tigers.lockerdium.com)에서 12만원에 판매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순천 효천고 박성한,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 대표 선발

순천 효천고 유격수 박성한이 제11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 대표로 선발됐다. 대한야구협회관리위원회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대만(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최종명단을 발표했다. 이성열 유신고 감독을 사령탑으로 하는 대표팀은 투수 7명, 포수 2명, 내야수 6명, 외야수 3명으로 구성됐다. 내야수 6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효천고 박성한(우투좌타)은 공·수·주에서 고른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한은 특히 수비에서 기대를 하는 재목이다. 박성한은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좋기도 했지만 긴장도 된다”며 “수비에서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다. 내가 최고라

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한다. 무엇보다 정확한 송구가 장점이다.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손쉬운(NC) 선배님이 롤모델이다”고 언급했다. 또 “장타자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짧게 정확하게 치다 보니 장타도 나오고 있다”며 “대표로 해서 가는 거니까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994년 시작된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야구연맹(BFA)이 2년마다 개최하는 공식대회로 한국은 1996·2003·2009·2014년 등 총 4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 대회 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상대로 2-1로 승리하며 5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탈환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